7/7/19

설교 제목: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8 장 11-13 절

(막 8: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막 8: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막 8: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막 8: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본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 주신 후 모여든 무리들에게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한 무리들이 가져온 음식이 떨어져 허기지자 칠병이어로 사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막 8: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막 8: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야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메시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메시야를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지껏 행한 이적들은 어땠습니까?
이방 땅을 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아직도 구약에서 약속한 오실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에게는 당연히 그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 선지자의 표적은 그들이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좀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소종히 여기던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아 예수님을 메시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였고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과 견제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불안하게 여겨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본절의 '시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약점을 잡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참 메시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그를 시험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의도로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신다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군사적인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시라면 이방 세력을 쳐부수는 그런 표적을 행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막 8: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막 8: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 많은 표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그런 군사적인 표적은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 42: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 42: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 42: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겸손히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16: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 16: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마 16: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표적을 구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푼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당신을 메시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세대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가데스 반야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을 정복하기 전 열 두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될 일을 그들은 열 두명의 정담꾼들을 보내어 그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아니 정탐을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430 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어짜피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았으니 하나님만 믿고 쳐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터인데 그런 짓거리들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열 두명의 정탐꾼들 중 열 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치는 것이 무모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므로 그들을 쳐서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 두명의 정탐꾼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자신들을 차라리 애굽 땅에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고 난리들을 쳤습니다.
이들의 짓거리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노라고 하시며 그들을 40 년간 광야에서 돌게 하여 그렇게 말한 자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민 14: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민 14:22)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 14: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 14: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 14: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14: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 14: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9)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민 14: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삼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야로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성공 신학과 축복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야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삼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야를 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높고 강하게 만들어 줄 그런 메시야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섬기는 종으로 이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음으로 새출애굽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